

광주여성발전센터 '가족 힐링캠프'



광주여성발전센터(소장 황인숙)는 지난 23일 나주 중흥골드스파에서 여성간담회1366 가족 화합을 위한 '2014 가족 힐링캠프'를 실시했다. <광주여성발전센터 제공>

초록어린이재단, 저소득 10가구 초청 행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사단법인 자평(이사장 김수관)·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조선대 치과대학교육문화재단(이사장 김홍중)의 후원으로 추억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전남대 총동창회,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행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회장 허정)는 최근 7·30재보궐 선거에서 당선한 이개호·권은희·신정훈(왼쪽부터) 의원 등 동문 국회의원을 초청 축하행사를 가졌다. <전남대 총동창회 제공>

강원구 회장, 금남로 5가역 명예역장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이호준)는 최근 한중문화교류회 중앙회 강원구 회장을 금남로5가역 명예역장에 위촉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이정일(전 광주 서구청장)·김현숙씨 차남 화염군 이성원·강경신씨 장녀 소망양=30일(토) 낮 12시 50분 홀리데이인 광주 3층 컨벤션 홀. ▲정영석(전 장흥관산교 교장)·조순덕씨 장남 평수군 고관석·임현숙씨 딸 효주양=31일(일) 낮 12시 광주 광천동 메종드보네르(구 꿈의 궁전) 5층 그랜드볼룸 홀 010-5101-7111. ▲구인근·최애숙씨 장남 현우군 김길성(은혜회원 대표)·노춘희씨 차녀 윤혜양=31일(일) 오후 1시 전북 익산 갤러리아 웨딩홀 1층 크리스탈홀, 당일 오전 10시30분 광주비엔날레주최장 전세버스 출발.

알림

▲사단법인 정음성선생기념사업회(회장 강원구)운영위원회=8월27일 낮 12시 광주 동구 불로동 히딩크관광호빌 6층 대강당 062-227-8500.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

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미혼부 모상담 및 입양상담 24시간, 위탁가정 상담, 입양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입양가족 자조모임 운영 062-222-9349. ▲'금영건설링' 채권·채무·재테크 무료 출장 상담=다중 채무·개인회생 및 파산 안내, 사업자 및 개인 채권 서류 검토 작성 대행, 재테크 절세 방법 상담 010-6392-4585.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하 채무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미혼모자가족 시설 입소 안내, 학생 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숙식보호 062-232-1313. 모집 ▲광주향교 2014년 하계 한문강좌 및

예절교육 회원=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월~금요일 오전 9~11시까지 2시간.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천자문 등 한문교육 및 예절 무료교육 062-672-7008. ▲맘보이엔터 살사동호회원=라틴댄스·살사·차차 등. 010-5136-0028.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예 등. 상춘동 원불교총국 062-232-7223~4. ▲이발기술 배우실 분 무료로 전수해 드림=북구 우산동 덕성이발관 062-524-0680. ▲한국마사회 광주지점 문화교실 무료 수강생=노래교실(화·수·오후 2시), 꽃꽂이교실(수·오전 10시), 탁구교실(수·오후 2시), 자율탁구교실(화~목·오전 10시), 영어교실(화·목·오후 4시) 062-410-5000.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문해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야학 교사·학생=초·중·고 졸업생 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지4거리에서 도보

로 3분 010-3423-1567. ▲한마음 장애인지킴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수강생=장구, 징, 팽고리, 북 함께하실 장애인(순이 자유로우신 분), 약 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놀이패 '신명' 단원=연극·탈춤·풍물·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사랑모아 가족복지회원=종이공예·

독서모임·성교육 스티디 강사, 생활체육 배드민턴 회원 모집 062-385-0422. ▲아카데미 자원봉사협의회=월 3~4회 노인 돌봄비·노인 무료급식·환경 사수대 활동 가능한 봉사자 모집 062-412-3201. ▲중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45세 이상 남녀 019-601-6989.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 아빠 나라말 경연대회' 전남 도지사상 보성초 2년 김슬아 양

“중국어 배우며 엄마나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최근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제4회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 아빠 나라말 경연대회'를 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라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대회는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 및 중도입국자녀 32명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예선을 통과한 22명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5개 국어로 꿈과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능숙한 중국어 실력으로 도지사상을 수상한 보성초등학교 2학년 김슬아(아)양은 옛날 목소리로 우승 소감을 전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참가자들이 많아서 결과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분 좋아요. 평소 집에서 엄마와 간단한 중국어 대화를 했던 게 큰 도움이 된 거

같아요.”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관해 3분 가량 중국어 원고를 준비했다. 중국 연길이 고향인 엄마 김향화(33)씨 덕분에 자신이 꿈꾸는 미래에 대해 A4용지 한 장 글을 완성했다. 이를 스마트폰에 녹음한 후 등하교 길은 물론 집에서도 반복해서 들었다. 김양은 평소 단어와 낮은 중국어 발음을 이해하고 외우는 게 힘들었지만 하고 싶은 일에 관한 내용이기에 즐겁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엄마와 함께 중국 패션쇼를 찾았던 김양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생생하게 당시를 떠올렸다. “아름다운 의상과 화려한 무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패션쇼를 본 적이 있어요. 큰 키와 예쁜 얼굴을 가진 모델도 좋지만 그들을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이번 대회 수상이 딸에게 커다란 경험이 될 것이라며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일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점이 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중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척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또래 친구들보다 슬하가 조금 더 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니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하게 됐어요. 대회를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잘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대견하고 고마워요.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슬하처럼 아빠와 엄마 나라 언어와 문화를 고루 배워서 다양한 기회를 얻으면 좋겠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박재순 ICID 광주총회 위원장, 베트남 방한단 환담

<국제관계배수위>

박재순 국제관계배수위원회(ICID)광주총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최근 화순에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부국장을 비롯한 물관리분야 공무원 방한단 22명을 만나 전 세계와 우리나라 관계배수 경험을 공유하는 ICID광주총회에 대해 설명했다.



박재순 ICID광주총회 공동조직위원장이 최근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방한단과 환담을 나누는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의 물관리 시스템과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와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사업을 견학한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방한단은 농어촌공사의 기술력에 찬사를 보내며 9월 14일부터 개최되는 ICID광주총회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2012년 베트남 방문 때 베트남 주석을 면담한 박 위원장은 베트남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지정리

를 비롯한 농업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했으며, 9월 14일에 방한하는 베트남 농업자관과 긴밀한 협력을 가질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생활 속 불편이 최고의 아이디어”

석산고 윤종현군, 전국학생발명대회 우수상

“발명을 좋아하는 전국 학생들이 모이는 큰 대회라 이렇게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못했어요. 제 발명품이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정말 기분 좋고 앞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로 도상을 받고 싶네요.” 광주석산고등학교(교장 주대술) 1학년 윤종현(16) 군이 제36회 전국학생과 학발명품경진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생활과학, 학습용품 등 총 5개 분야에 지역예선과 전국예선을 거친 우수작 301점이 본선에 출품돼 열띤 경쟁을 벌였다. 윤군은 학습용품분야에 부류과 중력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힘의 측정 장



했다. 교내에서 헬륨 풍선으로 만든 비행선을 만들던 윤군은 헬륨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저울이 시중에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래서 헬륨무게를 보여줄 수 있

지, 우아라’라는 작품을 출품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생활 속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고민했던 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기뻐했다. 교내에서 헬륨 풍선으로 만든 비행선을 만들던 윤군은 헬륨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저울이 시중에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래서 헬륨무게를 보여줄 수 있

고은 시인, 스트루가 시 축제 ‘황금화관상’



고은 시인이 24일(현지시간) 마케도니아 남부도시 스트루가에서 열린 제53회 스트루가 시 축제에서 대상인 ‘황금화관상’(Golden Wreath)을 받았다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고은 시인은 수상 직후 “지중해와 대서양,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갈라져 흘러가는 드림 강물의 운명처럼 시 정신도 세계 각 대륙으로 번져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고은 시인은 오는 28일까지 스트루가와 마케도니아 수도 스키페에서 열리는 시 낭송회에 참석하고 29일 귀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김석원 조선대 교수, 국제학술지 학술상



조선대병원 척추센터 김석원 교수가 국제학술지(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에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흉추부 중앙’에 대한 논문을 통해 2014 상반기 최우수 임상학보에 선정, 학술상을 수상했다. 목 디스크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김석원 교수는 대한신경손상학회에서 최우수 학술상,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최우수학술상,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미세 침습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

정우성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퇴임



정우성(62)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이 43년 여간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한다. 정 국장은 지난 1971년 교직에 첫 발을 디디어 초·중·고 교육현장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제교류가 미약했던 1970년대부터 글로벌 시대의 도래를 인식하고 영어 등 국제교육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정 국장은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으로 43년6개월간의 교직생활을 큰 문제 없이 마무리하게 됐다”며 “그동안 미뒀던 사정과 한문 공부 등을 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funeral home (삼가 故人之冥福을 빕니다)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several funerals.